

I'M SURPRISED

교육의 경계를 허문 50년
미래를 여는 놀라운 100년



발간사

미래를 여는 전문교육, 혁신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목포과학대학교가 개교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대학이 걸어온 반세기의 여정은 결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1976년, 지역 인재 양성과 국가 산업 발전을 향한 굳건한 사명감으로 출발한 목포과학대학교는 전문대학 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어온 주역으로서, 미래를 향한 혁신과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수많은 변화의 파고를 맞았고, 그때마다 교육은 지역을 살리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직업교육의 중심, 목포과학대학교의 오늘은 대학의 내일을 열어가는 교수·직원,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학생,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동문과 지역사회가 함께 이룩한 숭고한 헌신과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첫째, 반세기 동안 우리는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전문 직업교육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보건·복지·기술·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실무중심 교육을 구축하였고, 첨단 실습 환경과 차별화된 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수많은 현장 전문인을 배출하며 지역 의료·산업 발전에 큰 축을 세웠습니다.

둘째, 우리는 대한민국 평생직업교육대학의 혁신을 선도해 왔습니다. 호남지역 최초의 산학연계 특성화 교육, AI·DX 기반 미래교육 체계 구축, ESG 실천 교육, 지역기반 융합교육 등 각종 혁신 정책을 앞서 실현하며 ‘고등직업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AI·탄소중립·디지털전환의 흐름에 부응하여 교육 전반을 체계적으로 재편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역량을 한층 더 견고하게 갖출 수 있도록 교육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셋째, 50년의 성취를 넘어 우리는 지금 새로운 100년을 향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지역 혁신의 중심’이자 ‘전남형 미래대학 모델’로서 AI·ESG·탄소중립·헬스케어·지역창업·글로벌 교류를 핵심 축으로 새로운 대학 비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100년은 과거보다 더 빠르고 복잡하며,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시대입니다.

목포과학대학교는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을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에게는 희망과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와는 상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혁신의 동반자로 함께하겠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힘차게 도약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학이 만들어 갈 ‘또 한 번의 위대한 100년’을 향한 여정에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목포과학대학교 총장 경영학 박사 이 호 군

경력사



오늘의 50년은
새로운 100년의 출발점입니다

목포과학대학교 개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세기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수많은 전문 인재를 길러낸 목포과학대학교는 전남을 대표하는 고등직업교육의 산실로 굳건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아 대학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76년 개교 이래, 목포과학대학교는 ‘진리탐구·덕성함양·기술계발’의 교육철학 아래 보건·공학·인문·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도 AI와 탄소중립, 지역혁신 등 미래지향적 교육을 선도하며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학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지난 50년의 성취 위에 새로운 100년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목포과학대학교가 교육과 기술, 산업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전남형 미래대학’으로 성장하여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의 자산이자 세계의 인재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AI-ESG 기반의 혁신 대학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포과학대학교의 이러한 변화와 도전은 곧 전남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불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50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100년의 출발점입니다.

이사장으로서 그리고 교육인으로서, 대학의 모든 구성원과 동문,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더 큰 도약을 향해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으로, 1976년 3월 10일 개교 및 입학식에서 설립자 이경수 박사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전하며 축하 인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이 이곳을 영원한 마음의 고향으로 가꾸어 나가길 바라며, 지금 이 순간이 본교의 끝없는 발전을 향한 웅비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뜻깊은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 대학의 새로운 백 년도 더욱 힘차게 열어가길 소망합니다.

2026년 2월

학교법인 영신학원 이사장 **문석남**

축사

사람을 중심에 두고, 기술과 가치를 아우르는 ‘미래대학’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목포과학대학교의 개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목포과학대학교가 지금까지의 교육성과를 쌓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교직원 분들, 동문 여러분, 지역사회에도 깊은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1976년, 지역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사명감으로 출발한 목포과학대학교는 지난 반세기 동안 실용과 창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고등직업교육의 새로운 성과와 기준을 세워 왔습니다.

간호·보건·공학·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배출된 수많은 인재들은 지역의 산업을 움직이는 힘과 국가 발전을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단순히 한 대학의 개교 50주년에 그치지 않고 전남의 미래와 대한민국 교육이 걸어온 길을 함께 되돌아 보는 뜻깊은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포과학대학교는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성을 이행해 온 것에 그치지 않고 대전환의 시대에 전문대학의 교육혁신과 융합형 전문인재 양성을 함께 추진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교육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 신속히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의 도전과 혁신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삶과 배움을 연결하고, 의료·보건·복지·문화가 어우러진 포용적 고등교육 모델을 만들어가는 대학의 역할은 전라남도과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튼튼하게 만드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생활 속의 대학’, ‘세계로 향하는 대학’, 그리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을 지향하는 목포과학대학교의 교육철학은 대한민국 고등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대학과 지역, 산업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마련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목포과학대학교가 지난 50년의 역사를 토대로, 향후 100년을 향해 더 크게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기술과 가치를 아우르며, 지역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진정한 ‘미래대학’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개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목포과학대학교의 새로운 성장과 도약, 그리고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6년 2월

교육부 장관 **최 교 진**

축사

50년의 가치가 100년 동안 이어지도록



반갑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함께 한 50년, 그리고 새로운 100년을 향해 다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목포과학대학교 개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76년 작은 씨앗으로 시작한 목포과학대학교는 반세기 동안 지역과 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 성장하며, 수많은 전문 인재를 길러낸 '호남 고등직업교육의 자부심'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오신 역대 교수님과 교직원, 동문,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목포과학대학교는 언제나 지역의 필요를 읽고, 산업의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며, 실용 중심 교육과 사람 중심의 가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AI와 바이오, 헬스케어, ESG 등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과 사유를 품은 교육은 지역의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왔습니다. 이 모든 성취는 '지역과 함께 성장한다'는 대학의 믿음을 오랜 세월 지켜온 결과입니다.

다가오는 100년은 도전과 혁신, 그리고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목포과학대학교가 교육의 경계를 넓혀 산업·문화·지역을 아우르는 '열린 캠퍼스'로 한층 도약하길 희망합니다. 또한 전남의 청년들이 세계의 무대에서 당당히 활약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대학이 되어주시길 응원합니다.

저 또한 국회에서 AI·바이오·보건 등 신산업 기반의 고등직업교육 정책을 강화하고, 지역대학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며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목포과학대학교가 만들어온 지난 50년의 가치가 앞으로의 100년에도 이어지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개교 50주년을 축하드리며, 목포과학대학교가 지역의 희망을 품고 세계로 뻗어가는 '미래형 글로벌 대학'으로 찬란히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목포과학대학교 파이팅!

2026년 2월

국회의원 김 원 이

축사



산업과 지역,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길

안녕하십니까.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서미화 국회의원입니다.

‘목포과학대학교 개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76년 개교 이후 50년 동안 목포과학대학교는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해 온 대학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구조 속에서도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인재를 길러내며 전남 지역 고등직업교육을 든든하게 지탱해 왔습니다. 오늘의 성취는 대학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역대 총장님과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캠퍼스를 지켜온 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대학을 아껴주신 지역사회 모든 분들의 노력이 함께 만든 소중한 결실입니다.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뜻하지 않은 행운을 주는 대학, 목포과학대학교’라는 소개처럼 목포과학대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온 대학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초고도 인공지능 시대로 상징되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목포과학대학교는 AI와 신재생에너지, 보건·복지 등 미래 핵심 분야에서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하며 청년들이 자신의 ‘브랜드’를 세우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100년은 도전과 혁신의 시간입니다. 그럴수록 지역에서 시작된 배움이 세계와 연결되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목포과학대학교가 산업과 지역,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글로벌 대학으로 더욱더 도약해 전남의 청년들이 목포에서 배우고, 세계무대에서 당당히 활약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저 역시 목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대학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단단히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배경을 지닌 청년들이 차별 없이 교육에 접근하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목포과학대학교 개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목포과학대학교가 지역의 희망을 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대학으로 더욱 힘차게 도약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국회의원 서미화